

중국 성장의 국제정치

김태현*

“중국위협론”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급속성장이 지니는 국제정치적 의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기계적이고 정태적이다. 즉 중국의 급속성장을 강대국 간의 힘의 불균등 성장으로 정의하고 이를 세력균형론이나 세력전이론 등 기왕의 이론에 기계적으로 대입했다.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팽창압력전쟁이론”(lateral pressure theory of war)을 소개하고 그에 비추어 중국성장의 국제정치적 의의를 논의한다. ‘팽창압력이론’은 하나 혹은 그 이상 강대국의 팽창→돌 또는 그 이상 강대국 이해영역의 ‘중첩’→국지적 차원에서의 정치동학에 따른 갈등의 ‘촉발’의 과정을 통해 전쟁, 갈등 혹은 세력균형정치라는 근대 안보동학의 과정을 그린다. 즉 한 나라의 성장은 그 결과로서 그리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외 정치경제적 팽창을 가져온다. 이는 다른 나라의 이해영역과의 중첩을 초래하여 양자간 경쟁을 초래한다. 그와 같은 경쟁이 국지적 정치동학과 맞물리면 갈등이 촉발되기도 한다. 당시 체계의 속성에 따라 그와 같은 갈등은 전면전쟁으로 전개되거나 치열한 세력균형정치를 유발한다. 이 글은 각국의 무역자료와 중국의 정상의교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중첩정도를 따져보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 경쟁이 불안한 지역정세와 맞물릴 가능성을 따져봤다.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 등으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그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리고 석유 및 가스자원이 풍부한 가운데 국내정정이 불안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그와 같은 안보동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thkim@cau.ac.kr

1. 중국 성장의 국제정치적 의미

중국의 성장, 그것도 고속성장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중국이 연평균 9.0%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나아가 세계 전체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지닐 것인가? 그것이 국제정치질서의 안정성을 더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정 요소가 될 것인가? 국가들 사이의 위계질서는 더욱 평등해질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해질 것인가? 그와 같은 체계적 차원의 변화가 중소국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중국이라는 거대경제단위가 빠른 성장을 하면 그 성장분도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행위자들에게 경제적 기회 또는 도전을 제기한다. 오늘날 중국의 성장에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는 것은 대개 그와 같은 경제적 기회와 도전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큰 그림에서 국제정치학자들은 그것이 국가단위들 사이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에 주목한다. 오늘날은 전 세계의 모든 땅덩어리가 주권국가들에 나뉘어 지배되고 있는 국민국가의 시대이고 국가는 영토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원하여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정치적 경쟁을 펼친다. 중국이라는 경제단위가 성장을 지속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가가 그와 같은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한 그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적 관계, 즉 지배-복종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반론에서 더 나아가 중국의 성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구체적 과정과 동학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시간적, 공간적 조건에서 중국이라는 단위가 성장하는 현상은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과 유사한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일반적 요인을 정리하여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에 비추어 지금 시점의 특수한 상황의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이론적 작업이다.

이렇게 볼 때 일단 중국성장이 가지는 일반적 조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우선 거대단위이다. 영토의 크기, 그리고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 숫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강대국이다. 둘째, 중국의 경제는 유사한 크기의 다른 나라의 경제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셋째, 중국이라는 국가는 효율적 동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자원은 곧 전쟁잠재력이다. 즉 국가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대외적 관계, 특히 전쟁에 동원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상과 같은 조건을 가진 정치단위가 다른 단위에 비해 빨리 성장할 때 그것이 매우 역동적인 국제정치적 현상을 초래한다고 봤다. 국제정치의 역사, 나아가 세계사는 곧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라는 것이다(Gilpin, 1980; Kennedy, 1987). 그리고 그와 같은 역동적인 국제정치현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을 개발해왔다. 패권안정이론, 세력균형이론, 세력전이이론, 패권전쟁이론 등이 모두 국제정치학자들이 개발한 거시적 국제정치이론이다. 이와 같은 이론들이 중국의 성장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의미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 국제정치적 동학과 과정을 살펴보고 전망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수년간 이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소위 ‘중국위협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쉬운 일도 아니다. 중국위협론이 논의된 그 자체가 중국으로 하여금 ‘화평굴기(和平崛起)’ 또는 ‘화평발전(和平發展)’을 강조하는 등 현실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성장의 국제정치적 의의를 따지는 것은 마치 이동하는 표적을 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큰 의미가 있다.

첫째, 기왕의 중국위협론 등 이론적 논의는 극히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²⁾ 물론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거의 단일한 사건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라는 본질적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위협론이 인용하는 이론적 논의는 극히 추상적이고 정태적이어서 중국위협이든 중국기회든 중국의 성장이 지니는 국제정치적 함의에 대한 구체적 경로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1) 대표적으로 Bernstein and Monro(1997).

2) 중국위협론과 더불어 미중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문헌은 Friedberg(2005) 참조.

글의 불만이고 그를 보완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둘째, 이상의 불만에 비추어 이 글은 중국의 성장이 초래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파장을 지금까지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어 온 한 국제정치이론, 즉 “팽창압력이론”(lateral pressure theory; Choucri and North, 1975)을 원용하여 분석한다. 이 이론은 국제정치체계 혹은 체계의 구조에 초점을 두어 온 기왕의 이론과 달리 강대국들의 성장과 팽창이 맞물려 빚게 되는 국제정치동학의 구체적 경로를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셋째, 팽창압력이론의 논리에 따라 중국의 성장이 초래할 대외적 팽창의 궤적을 지난 5년간 중국 고위급, 특히 정상급의 외교적 행적을 따라 추적한다. 외교란 대개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외적 사안을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다. 그러나 정상급 외교의 경우는 미래지향적, 전향적 사안을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부가 그 나라의 국제적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중국위협론’의 구조

1) 중국위협론의 구조

주로 미국의 조야에서 제기되는 중국위협론은 두 가지 현실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첫째, 냉전종식이후 세계질서는 미국을 극으로 하는 단극적 또는 세계적 패권질서로 특징지어진다. 미국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상대할 국가가 없는 정도의 힘과 이익을 누리고 있다. 둘째, 세계 제4위의 영토와 세계 제1위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와 같은 급속한 성장은 곧 중국의 힘과 이익의 팽창을 낳아 미국의 지위와 이익을 ‘위협’한다. 그리고 그것은 강대국 간의 불균등성장이 세계적 차원의 전쟁을 낳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전 세계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 ‘중국위협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한 한 저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목표는 아시아에서 단일한 지배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미국의 확고한 정책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 앞으로 10~20년 사이에 중국이 태평양 서쪽에서 지배적인 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취하려 하거나 남지나해에서 영토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미국과의 군사적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이 지금처럼 계속 성장할 경우 더욱 그렇다. 설사 직접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10년 후 미국과 중국은 세계를 다투는 경쟁에서 적대관계에 설 것이다. 양국간의 경쟁의 와중에서 다른 국가는 한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군사력, 경제적 복지, 다른 나라와 현재 국제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는 여러 가치와 관행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과 같은 국제경쟁의 표준적 요소가 모두 개입될 것이다. 나아가 미래의 중미경쟁은 서방의, 특히 미국의 세계적 우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계적 질서의 형성과 맞물릴 수도 있다(Bernstein and Munro, 1997: 21).

이렇게 볼 때 중국위협론은 몇 가지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강대국 사이의 세력구조의 변동은 세계정치질서의 안정에 큰 충격을 미친다. 둘째, 힘을 기준으로 한 국제정치적 위계질서의 정점에 위치한 국가들 사이에 상대적 힘에 변화가 생길 경우 그것이 패권적 경쟁의 형식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강대국 사이의 패권적 경쟁은 국제적 행위규범과 체계를 둘러싸고 펼쳐지며, 그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에 어려운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가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2) 국제체계의 구조변동과 세력균형 정치

국제정치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 국가들이 하나의 (법)인격체가 되어 펼치는 국제정치는 하나의 체계(system)를 구성한다. 체계란 곧 서로 상호작용하는 단위들의 집합체다. 하나의 체계 속에는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견적으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른 쪽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 체계의 총체적 구조가 그 체계의 행태적 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국제정치체계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특징은 그것을 구성하는 단위, 즉 국가들이 최소한 명분에서 그 상위의 권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즉 국제정치체계 구조의 근본적 특징은 그 단위들 사이의 관계가 위계적

(hierarchical)이 아니라 무정부적(anarchical)이라는데 있다. 그러다보니 그 단위들 사이에 힘을 기준으로 한 사실상의 지배복종관계를 다투는 적나라한 권력정치가 나타난다는 역설적 현상을 초래했다. 그래서 정치단위들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제도화하고 그에 따라 예측가능한 정치현상을 펼치는 국내정치와 달리 단위들 사이의 힘의 부침에 따라 그 현상도 달라지는 매우 커다란 역동성을 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자들은 그 역동성에도 일종의 패턴, 즉 정형이 있다고 봤다. 특히 국제정치체계를 주름잡는 강대국들의 숫자가 곧 체계의 구조를 규정하고 서로 다른 구조가 각 단위들에 상이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단위들의 행위적 특징을 초래한다고 본 것이다. 주어진 국제체계 속에 강대국이 단 하나일 때의 단극구조, 둘일 때의 양극 구조, 셋 이상일 때의 다극 구조 등이(구조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이 주어진 국제정치체계 속의 국제정치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다.

특히 이들이 볼 때 국제정치체계가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큰 행태적 특징은 바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정치이다(Waltz, 1979; Jervis, 1997).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권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위권위체가 없는 국제무정부 속에서 각국은 각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스스로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력구제(self-help)의 정치를 펼친다. 그 힘이란 다른 국가의 힘에 비추어 정의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의 힘에 주목하고 그에 비추어 스스로의 정책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체계 내의 모든 나라가 모든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그에 따라 체계 한쪽의 움직임이 다른 쪽에 반향을 초래하는, 국제정치의 체계성을 낳는 것이다.

그와 같은 세력균형정치는 묘한 동태적 과정을 통해 세력균형의 “법칙”을 낳는다. 각 국가들은 장기적, 단기적 차원에서 각자의 생존 및 그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느 국가가 지나치게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막게 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느 나라가 국제체계전체를 지배하는 일은 없다. 다시 말해 국제체계의 무정부적 성격이 재생산된다. 그와 같은 패턴은 거의 법칙에 가까운 역사적 흐름을 보여 왔다.

이러한 자율조정과정은 때로는 평화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 보

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개의 경우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폭력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국가들 사이의 작은 다툼도 일종의 세력균형의 과정이었다. 나폴레옹전쟁,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은 보다 큰 다툼이었지만 그것도 세력균형의 과정이었다.

월츠와 같은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정치가 큰 전쟁으로 펼쳐지는 경우는 강대국이 셋 또는 그 이상인 다극체계에 흔하고, 강대국이 둘인 양극체계의 경우 오히려 드물다고 본다. 세력균형을 위한 자율적 조정과정에서 인간의 불완전성에 따르는 불가피한 실수가 다극체계의 경우에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Waltz, 1979). 반면이라는 냉전이라는 고도의 강국정치가 파국적 대결을 초래하지 않은 것은 바로 양극체계의 안정성 때문이다.

다극적 국제정치구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극적 국제정치구조로 바뀐 것은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펼치던 양극적 냉전정치가 종식되고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로 이행한 것도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³⁾ 그러나 월츠는 무정부적 국제정치의 기본 구조 속에서 펼쳐지는 세력균형정치는 장기적인 단극구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무정부적 국제정치의 기본 구조는 각국으로 하여금 단극의 유일한 힘을 균형 잡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유일한 강대국은 곧 대항적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세력을 맞게 될 것이라고 본다.

단극구조가 지속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정부적 구조 속에서 견제되지 않은 힘은 그 자체가 위협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견제되지 않은 힘을 가진 국가의 행태도 위협적이 된다. 그 의도에서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행위에서 예측가능성을 잃게 된다. 자력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가 예측가능하지 않게 행동하면 다른 나라는 대응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는 곧 그 힘을 균형잡기 위한 세력균형법칙의 작동을 초래한다(Waltz, 2000; 김태현, 2004).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동태적 변수는 현재 미국 중심의 단극

3) 우발적이라는 말의 뜻은 극구조의 변화가 초래된 것은 국제정치동학의 작동에 따른 본질적 결과가 아니라 외생적 변수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

질서에 커다란 변형의 축으로 작용한다. 중국이 미국의 힘을 균형잡을 수 있는 제 1의 후보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스스로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성장으로 가용해진 자원을 동원하여 미국에 맞서는 정책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정부적 기본구조가 중국이라는 단위에 가하는 구조적 압력이다. 중국의 성장이라는 기본 변수와 중국의 정책이라는 행동변수는 다른 나라들의 정책적 옵션을 제한하여 이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 국제정치구조를 바꾸는 정치적 동학을 촉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단극적 국제질서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성장은 세력균형정치라는 근대 국제정치의 독특한 동학을 발동시킬 수 있다. 그 환경적 요인은 중국으로 하여금 모종의 정책적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그와 같은 정책적 조치는 다수의 국제정치 행위자들 속에 일종의 연쇄효과를 불러일으켜 고도로 복잡적이고 동태적인 국제정치를 촉발한다. 그와 같은 현상은 잠재적으로 폭력적이지만, 20~21세기의 특징인 핵무장상태를 감안하면 비폭력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3) 세력전이

월츠는 다극, 양극, 다극 구조 내부의 국제정치적 패턴을 분석하지만, 다극 양극 단극과 같은 구조적 변형과정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을 개발하지는 않았다. 그런 만큼 그의 이론은 다극, 양극, 단극의 국제정치 모습의 일종의 “스냅사진”을 찍고 그것을 비교하는 정태적인 이론이다. 극구조간의 이행과정을 “동영상”으로 찍는 동태적 이론은 아니다.

국가들 사이의 상대적 힘의 변화가 국제정치적 패턴의 변화를 초래하는 보다 동태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이론이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다(김우상, 2004). 오겐스키(A.F.K Organsky)가 내세운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적이라기보다 위계적이다. 그것이 무정부적이라는 것은 명분적인 측면일 뿐이고 사실에 있어서는 위계적이다. 그 위계의 정점에 위치한 국가는 그에 따른 현실적 이득을 누린다. 국제정치를 지배하는 행동원칙이나 이념은 그 국가의 이익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원칙과 이념을 통해 지배국가는 보다 많은 이익

을 누린다.

외생적 요인에 따라 제2의 국가가 보다 빨리 성장하여 지배국가를 따라 잡거나 앞서게 되는 일은 역사를 통해 흔히 일어났다. 그 결과는 단순히 적나라한 힘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힘은 국제정치체계의 행동원칙과 이념을 바꿈으로써 도전국가의 이익에 봉사한다. 그러나 행동원칙과 이념의 변화는 힘의 변화에 바로 반응하여 일어나지는 않는다. 제도적 관성과 인식의 타성 때문이다. 그에 따라 도전국가는 현존질서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고 필요시 그 질서를 힘을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도전국들은 현존 국제질서가 확립된 후에 세력을 키워 온 불만족스러운 강대국들이다. 그 국가들의 엘리트층은 국제질서의 주된 이익이 이미 배분되어 있는 상황에 직면하며, 여기서 갈등의 조건들이 나타난다. 도전국들이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지위, 즉 성장하고 있는 그들의 세력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위상을 확립하고자 할 때 평화는 위협받는다. 불만족스러운 강대국의 세력이 지배국의 세력보다 더 빨리 성장하여 거의 대등한 상태가 될 때 불안정은 증가하고 갈등의 소지 역시 증대한다. 지배국의 지도자들은 세력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다음과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첫째, 도전국이 지배국의 힘을 능가할지 모른다. 둘째, 도전국이 점차적으로 국제질서 속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감수하려고 들지 않을지 모른다. 셋째, 기존 국제질서의 규칙과 지도력에 도전할지 모른다. 이는 지배국의 가상적 두려움만이 아니라 도전국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세력전이 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불만족스러운 국가가 현상유지의 지속보다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됨으로써 더 큰 이익과 특권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면 마침내 국제질서에서 지배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동시에 지배국가는 변화하는 세력관계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변화에 저항할 준비를 한다. 세계전쟁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드문 조건으로 인해 발발하는 것이다(Kugler and Organski 1988: 174-75).

결국 세력전이이론에 따르면 힘과 그 힘에 대한 인식사이에 괴리가 생길 경우 두 가지 과정에 의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첫째는 자국의 힘이 반영되지 않은 지배적 정치구조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에 의한 도전적 전쟁이다. 다른 하나는 도전국의 추격에 불안을 느낀 기존의 패권국에 의한 예방전쟁이다. 누구에 의해 도

발되었던 그러한 전쟁은 곧 국제체계의 새로운 패자(覇者)를 결정하는 패권전쟁으로 전개된다.

4) 패권전쟁

강대국들 간의 차별적 성장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동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길핀(Robert Gilpin)이다. 그는 월츠식 용어로 단극, 양극, 다극 구조에 해당하는 제국적/패권적 구조, 양극 구조, 세력균형 구조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고 이들 구조 사이의 변화를 국제질서의 변동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이의 변화가 점진적 혹은 혁명적 과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나 그 중 특히 혁명적 변화, 즉 전쟁에 의한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혁명적 과정을 통한 국제체계의 변혁이 곧 패권전쟁이다.

길핀은 모든 “국가는 변화의 한계비용이 그 한계이익 이상이 될 때까지 영토적, 정치적, 경제적 패창을 통해 국제체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전제한다(Gilpin, 1981: 106). 그러나 그 초기 조건에서 국가들은 경제, 기술, 군사력 등에서 동등하지 않다. 그리고 팽창의 이익이 그 비용보다 크다고 여기는 국가들은 주로 우월한 초기조건을 누리는 국가들이다. 때로 특정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어 당시의 체계를 지배하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한 국가가 바로 패권국이다.

패권안정이론(백창재, 2004)에 따르면 패권국은 체제에 질서와 안정을 부여한다. 가장 뛰어난 기술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가 순조롭게 기능할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도 바로 패권국이다. 그 결과 패권국은 경제거래의 규칙을 제정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그 체제를 지배/통치한다. 그러나 지배는 새로운 비용은 낳고 그 비용은 빠르게 증가한다. 체제에서 얻는 잉여이익이 체감하면서 결국은 본신의 능력까지 잠식하게 된다. 게다가 패권적 지위에 편승하여 해외로 팽창한 기업들은 경제, 기술, 군사적 우위를 전파시켜 패권국의 지위를 더욱 잠식한다(Gilpin, 1975).

이렇게 함으로써 초기의 세력분포가 변하고 초기조건에 따라 형성된 질서와 새로운 세력분포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체

제는 변동하고 새로운 세력분포를 반영하는 새로운 균형이 형성된다. 그 변동과정이 종종 패권전쟁으로 연결된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패권전쟁의 좋은 예다. 이 전쟁에 대한 소중한 기록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Thucydides, 1943)를 면밀히 검토한 길핀은 패권전쟁의 특징 세 가지를 든다(Gilpin, 1989). 첫째, 그것이 전치적, 전략적, 경제적인 면에서의 폭넓은 변화에 기인한다. 둘째, 패권전쟁은 개별국가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체계 내부 대부분의 국가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셋째, 패권전쟁은 그 결과로서 국제정치체계의 구조를 변형시켜 기왕의 국가들의 관계와 위계와 질서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꾼다.

도전국과 패권국 사이의 전쟁은 힘의 속성 또는 이익의 불가피한 충돌 때문만은 아니다. 패권국과 도전국은 대개 서로 대조적이고 경쟁적인(경제적) 생산양식, 정치구조, 그리고 국제관계의 행위규범과 체계를 보유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상업의 경제기반과 민주주의 정치체제, 해양력의 군사적 기반을 가진 아테네와 노예농업, 권위주의 정치체제, 육군력 중심의 스파르타 간의 대립이 좋은 예다. 이들은 또 그리스 국제체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직하고자 했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미국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한 소련이 그들의 방식으로 국제관계를 조직하고 관리하려고 서로 경쟁했던 것이다. 이점에서 냉전도 하나의 패권전쟁이었다고 할만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세계경제에의 편입을 통해 고도성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적 정치체제와(최소한 명분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아시아적 가치라는 문화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반해 미국의 정치적 수사는 '자유'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통해 크게 폄하되기는 했지만 국제정치에서 문화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Huntington, 1996).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는 세력균형의 정치와 세력전이의 논리에 더해 중국의 성장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위험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소위 '중국위협론'의 배경을 이루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이론으로 미래를 점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첫째, 앞에

서 지적인 바와 같이 월츠의 국제체계이론과 세력균형논리는 하나의 정태적 이론으로 성장의 국제정치동학을 그리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보다 동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전이이론은 그 구체적 과정을 그림에 있어 불확정적이다. 도전국과 패전국 중 누가 전쟁을 촉발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그렇다. 셋째, 정치, 경제, 이념적 대립을 강조하는 패권전쟁론의 경우 경제성장이 정치적 민주화를 가져옴으로써 체제의 수렴이 있을 수 있다는 비교정치학 이론과 배치된다.

요컨대 이상의 여러 이론은 중국의 성장에 따라 패권경쟁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적 변수에 대한 거친 서술일 뿐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 지금까지 비교적 소홀히 취급돼 온 '팽창압력이론'이 보다 생생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3. 팽창압력이론

1) 팽창압력이론의 기본 논리와 명제

1990년대 초 세계는 일본→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연결되는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찬사를 보냈다. '신태평양 공동체'라는 정치적 슬로건도 그와 같은 지역차원의 성장을 배경으로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경제적 나아가 국제정치적 함의에 대한 논의도 무성했다(예로 Friedberg, 1995). 그러다가 1997년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그와 같은 논의가 사라졌다. 대신 그때까지의 고도성장이 지니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20세기 초반의 경험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경제적 세계화가 가지는 (불길한) 국제정치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새로 등장했다. 경제적 세계화의 정점인 1997년에 세계적 경제위기가 도래한 것은 마치 세계경제가 고도로 상호의존적이었던 20세기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것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전망이 굳이 왜 지금 등장하는가? 그것이 우리 연구에 대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

호사다마(好事多魔)는 인간사에 흔히 있는 일이고 필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글

을 쓴 적이 있다(김태현, 2000). 그러나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는 법칙성을 하나의 우연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설명의 하나가, 그리고 우리의 관심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팽창압력이론(lateral pressure theory)다.

1902년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홉슨은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이라는 의미의 “제국주의”의 뿌리가 경제에 있음을 갈파했다(Hobson, 1902). 즉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결과로서 부(富)의 편중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과소소비, 과다생산이 초래되며, 그로써 상품과 자본의 해외진출에 대한 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레닌이 그 가설을 수용하여 제국주의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다들 아는 이야기다.

MIT의 슈크리와 스탠포드대학교의 노스는 1975년 제1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것은 특정 국가의 부의 편중과 같은 특정한 조건이 아니라 다수 국가에서의 동시적 성장 그 자체라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Choucri and North, 1975). 즉 각 국가 내부의 독자적 요인과 과정에 따라 성장하고 그 불가피한 결과로서 해외로 팽창하며 그에 따라 각국의 이해영역이 충돌하고, 그것이 정치외교군사적 충돌로 전개된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슈크리의 제자인 애슐리는 그와 같은 모델은 1950년 이후 미-중-소에 적용하는 책을 출판했고(Ashley, 1980), 다른 MIT 출신인 골드스틴은 그것을 일반화하여 세계경제의 경기 사이클과 전쟁 사이클이 유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Goldstein, 1988). 즉 세계경제의 호황은 세계적 차원에서 많은 전쟁과 인과적 관련이 있다는 매우 일반론적 주장을 펼친 것이다. ‘팽창압력이론’의 일반적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흐름을 탄다.

1) 국제정치현상은 기본적으로 인간현상이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행동하는 것은 행동주체로서의 인간이다. 그들 삶의 일부로서, 또한 과정으로서 조직이 형성되고 무엇보다 국가라는 집단적 단위가 생성되며, 그것이 행동주체가 되기도 한다. 인류진화의 한 과정에서 등장한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는 특히 강력한 조직력과 동원력을 가진 조직유형이다.

2) 국가의 성장(national growth): 국가들은 인구성장, 기술발전 등 주로 외생적/독자적 변수에 따라 성장한다. 그와 같은 성장과정은 대체로 일방적이어서 되돌

리기 어렵고 정부가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하에서 말하는 일련의 동학에서 근본적인 동력(driving force)이 된다.

3) 팽창(expansion): 국가의 성장은 불가피하게 외부적 효과를 낳는다. 최초의 성장이 내부적 변수에 의해 촉발되었을지라도 그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과 자원을 찾아 외부로 팽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한 국가의 경제적 팽창은 때로 국가가 주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집중적 관리를 받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현상만은 아니다. 동시에 정치적 현상이다. 국가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또는 자원공급처를 찾아 해외로 팽창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정치적, 외교적 효과를 동반한다.

4) 중첩(重疊, intersection)과 경쟁(rivalry): 두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팽창할 때 이들의 활동과 이해영역이 겹치게 된다(세계경제의 통합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세계경제가 경기주기에서 성장의 주기에 있을 때 동시적 팽창의 개연성은 높아진다). 복수 국가들의 활동과 이해영역이 중첩되면 자연히 경쟁관계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쟁관계는 자연히 외부효과를 낳아 외교적 경쟁과 심지어 군비경쟁까지도 초래한다. 다시 말하면 대외적 활동이 충돌하고 그에 따라 정치외교적 갈등이 생기면 이것이 통상적인 국제정치활동의 현상을 이룬다. 각국의 군비(軍備)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양국간의 외교적 현안의 중요부분을 이룬다.

5) 촉발(provocation): 이해영역이 겹친 지역에서 국지적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은 강대국 간의 충돌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지적 갈등이 강대국들의 이익에 미칠 영향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복합적인 정치적 동학이 있다. 첫째, 지역행위자들의 갈등행위가 강대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전개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게 된 1914년 6월 사라예보 사건이후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는 바로 독일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들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었다. 둘째, 이 경우 강대국들의 이익은 단순히 해당지역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뿐만 아니다. 이들이 강대국인 한 지역차원에서 이들의 행동은 곧 세계적 차원에서 이들 공약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강대국들의 입장은 대체로 경화되는 경향이 있다.

6) 그와 같은 국지적 상황에 더해 관련된 강대국의 숫자가 셋 이상인 다자적 상황이 되면 거기서 초래되는 정치적 동학은 매우 복잡적이 된다. 고도의 세력균형 정치가 펼쳐지고 그 세력균형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전면적 전쟁, 곧 세계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이론의 논리를 빌면, 중국의 성장은 보다 동태적인 모습을 띤다. 첫째, 중국의 성장은 중국 '인' 들의 여망(興望)을 동력으로 하여 전개되는 독자적 과정이다. 중국 국가는 그와 같은 여망에 부응하는 한편 그를 이용하여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 둘째, 중국의 성장이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외부효과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 성장 자체와 그것에 따른 외부효과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장의 국제정치적 동학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외부 행위자들의 선택과 행동과 맞물려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외부행위자는 중국의 성장과 팽창에 따라 영향을 입을 다른 강대국들만이 아니다. 강대국들간 경쟁의 장(場)이 되는 국지적 행위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중국의 성장과 팽창압력론

중국경제성장의 동인을 찾는 것은 논외로 하고, 요지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외부효과에 있다. 성장에 따른 산출을 소화하기 위해, 성장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을 위해 중국의 정부는 그 정치적 활동영역을 해외로 팽창하게 된다. 정부의 대외활동은 설사 그것이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이더라도 그 행동 자체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정부의 행동에 따른 현재 및 미래의 공약을 포함한다.

1) 팽창: 팽창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식민지 활동이 그 주된 현상이었고 따라서 슈크리와 노스는 그들의 계량분석에서 식민지를 팽창의 척도로 사용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무역이 주된 현상이어서 애슐리는 무역의 지역적 분산정도를 척도로 사용한다.⁴⁾ 그 외 군대의 해외주

4) 구체적으로 Ashley는 한 나라의 총 무역량을 지역별 무역량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그 나라의 무역량이 지역별로 고를수록 표준편차가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짐에 따라 이 척도의 값은 커진다.

둔, 외교관계의 개설, 동맹의 체결 등도 팽창의 한 유형이다.

중국의 팽창은 무엇보다 세계 시장으로의 팽창이다. 거의 무한정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공산품은 전 세계시장을 석권하여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그와 같은 생산은 노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중 내부에서 충족되지 않는 자원은 외부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고 그를 위한 팽창도 뒤따른다. 그에 더해 중국의 성장 그 자체는 중국 '인'들의 삶의 양식과 기대를 바꾸어 그에 따른 대외적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팽창도 있다. 그 판매 및 구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외교적 행위도 팽창의 일부다.

2) 중첩: 중첩은 한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거나 지역 내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펼쳐지기도 한다. 즉 한 지역의 특정 국가에 대한 팽창이 겹치거나, 서로 다른 나라에 대한 팽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지역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의 중첩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중첩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강대국이 동시에 팽창하거나 한 강대국이 팽창하면서 기왕의 강대국의 이익영역으로 팽창해 나갈 경우 발생한다.

중국의 해외시장 팽창은 곧 다른 나라의 시장을 잠식하고 이것이 중첩의 전형적 예다. 다만 생산체계의 수직적 분화에 따라, 즉 중국의 수출주력상품이 노동집약적 상품이어서 미국이나 일본 등 기타 강대국들과의 중첩은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직적 분화의 상대적 속도에 따라, 즉 선진국의 기술개발 속도가 지체되는 한편 중국의 추격속도가 빠를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중첩의 시점과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생산라인의 수직적 분업이 불가능한 자원영역의 경우, 특히 에너지 자원과 같은 기초 자원의 경우 중첩의 속도와 정도는 더욱 치열할 수 있다. 이 연구 자원영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량과 광석자원에서 중국의 성장은 수요 시장에서 중첩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 영역에서 그 중첩의 정도는 매우 높고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영역에서 중첩의 정도가 치열할수록 그것은 집중적 외교적 행위를 낳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정치적 중첩도 일어날 수 있다.

3) 촉발: 중첩, 특히 정치적 중첩은 국지적 차원의 정치적 동학에 의해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으로 촉발될 수 있다. 국지적 차원의 정치적 동학도 물론 크기는 독자적(indigenous)이다. 지역의 국가공동체는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에 따른 협력과 갈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지적 정치동학은 특히 세 가지 차원에서 강대국 간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첫째, 강대국들의 팽창의 대상이 되는 국지적 행위자들의 경우(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가 많다. 둘째, 그와 같은 국지적 차원의 정치적 불안은 중첩된 강대국들의 이익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국지적 차원의 정치적 동학 자체가 강대국들의 중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점을 보다 세밀히 따져보자. 한 국가에 대한 둘 이상 강대국의 이익이 중첩되면 국지적 행위자에 일종의 정치적 자율성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것이 그 국가의 대외적 행위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둘째, 한 지역의 서로 다른 국가에 강대국들이 팽창하여 지역차원에서 중첩이 이루어지면 강대국들을 등에 업은 지역 국가들 간의 갈등이 보다 경화(硬化) 또는 강화될 수 있다.

4) 경쟁과 갈등, 세력균형의 강대국 정치: 이익의 충돌과 지역적 사태로 경쟁이 심화되면 각 강대국은 군비를 증강하거나 군대를 재배치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 활동을 통해 경쟁과 갈등에 대비한다. 그와 같은 활동 자체가 경쟁을 구성하여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주변지역에서의 경쟁의 격화는 강대국들 간의 정치적 이합집산, 즉 세력균형의 정치로 전개된다. 핵시대에 그것이 패권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는 세계정세를 불안하게 한다.

3) 중국, 미국, 일본의 무역팽창과 중국 — 미국, 중국 — 일본의 중첩

〈표 1〉은 애슐리의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중국, 미국, 일본의 팽창지수와 중국-미국 및 중국-일본 간의 중첩지수이다.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7년~2003년의 7년간 수치를 계산하였다.

애슐리의 팽창지수는 특정국가의 총 무역량을 해당국가의 무역중 각 지역의 비율(%)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 그 나라의 무역이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을 경우 분모에 해당하는 표준편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팽창지수는 커진다. 물론 분자에 해당하는 총 무역량의 크기가 클수록 팽창지수도 커진다. 〈표 1〉에서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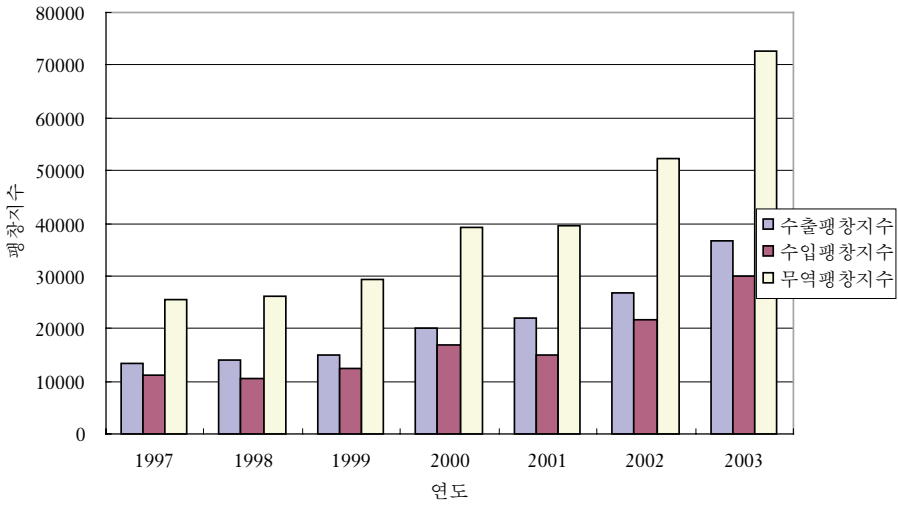
〈표 1〉 중국, 미국, 일본의 팽창지수와 중첩지수

연도	팽창지수			중첩지수*			
	수출	수입	무역 (수출+수입)	수출	수입	무역 (수출+수입)	
중국	1997	13,391	11,088	25,496			
	1998	13,999	10,460	26,064			
	1999	14,964	12,516	29,238			
	2000	19,927	16,777	39,243			
	2001	22,004	15,007	39,380			
	2002	26,736	21,689	52,148			
	2003	36,713	29,887	72,640			
미국	1997	72,582	116,043	189,262	11,000	16,148	53,840
	1998	69,485	119,895	191,122	10,789	17,083	54,566
	1999	68,876	134,277	203,673	11,947	22,078	66,168
	2000	77,336	167,240	242,888	17,455	31,728	96,292
	2001	73,582	157,498	229,631	17,578	38,173	109,242
	2002	70,512	160,610	231,206	19,451	41,031	117,272
	2003	74,413	181,367	255,461	28,041	60,379	171,099
일본	1997	30,009	34,158	79,743	10,994	7,294	37,817
	1998	29,671	27,375	72,515	10,653	6,183	34,130
	1999	30,704	30,704	76,349	12,846	8,145	42,735
	2000	34,143	38,786	87,052	18,780	12,302	63,083
	2001	30,178	36,279	77,260	16,421	15,497	65,306
	2002	31,770	29,407	75,066	20,821	17,520	76,841
	2003	37,769	40,664	85,169	30,759	22,419	11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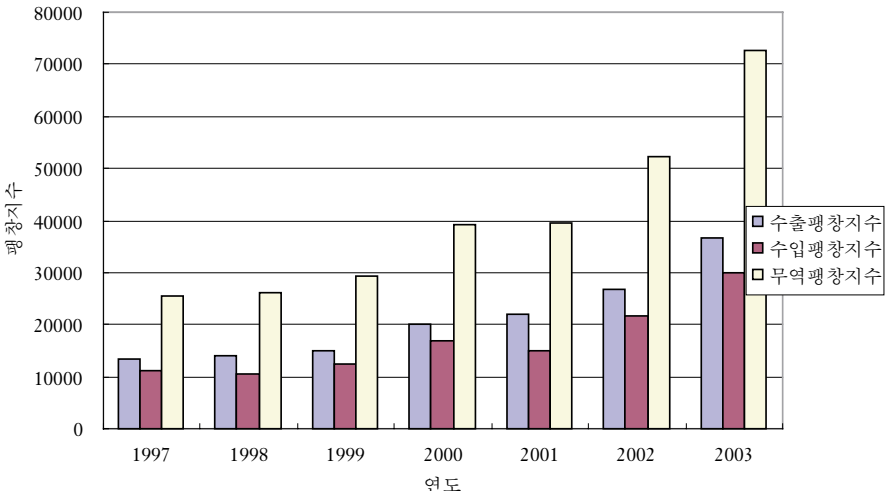
* 중첩지수는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의 중첩을 측정함.

출액, 수입액, 총무역액(수출액+수입액)에 대하여 각각 팽창지수를 계산했다.

중국의 경우 무역의 급격한 증가로(지역별 분포도 어느 정도 다양화되어 지역별 표준편차도 미량 감소함) 팽창지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1997년~2003년 7년간 팽창지수는 대체로 2.7배 증가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수출팽창지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수입지수, 그에 따라 총무역팽창지수는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미세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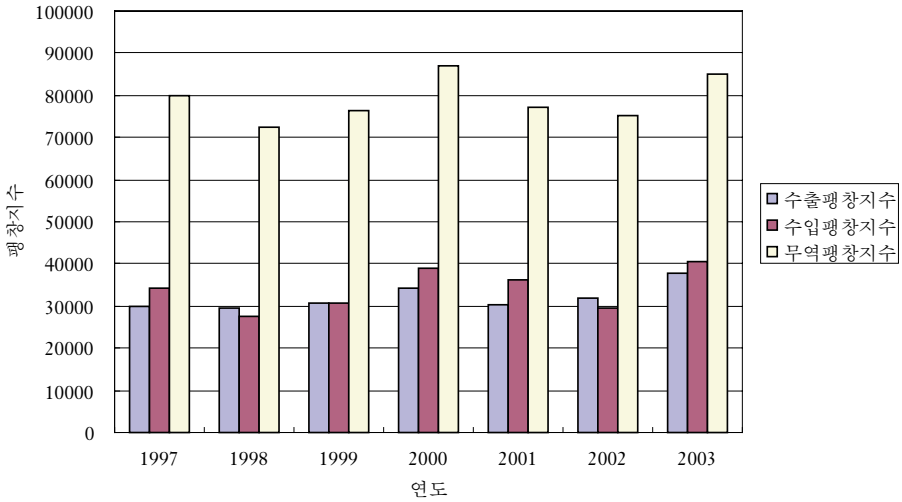


〈그림 1〉 중국의 평창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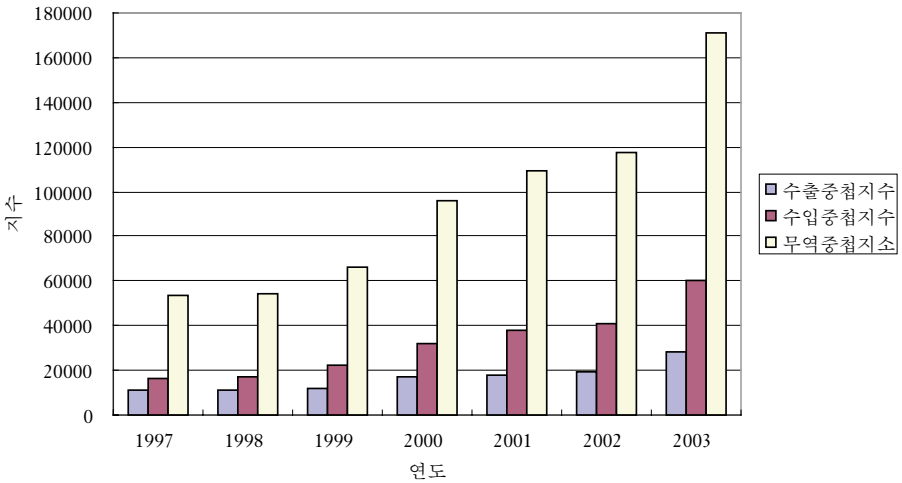


〈그림 2〉 미국의 평창지수

미국이 수입평창지수가 수출평창지수에 비해 월등히 큰 것, 또 중국의 경우 수출평창지수가 수입평창지수가 큰 것은 미국이 수입이 수출보다, 중국의 경우 수출이 수입보다 크기 때문이다. 무역흑자국인 일본의 경우 수입평창지수가 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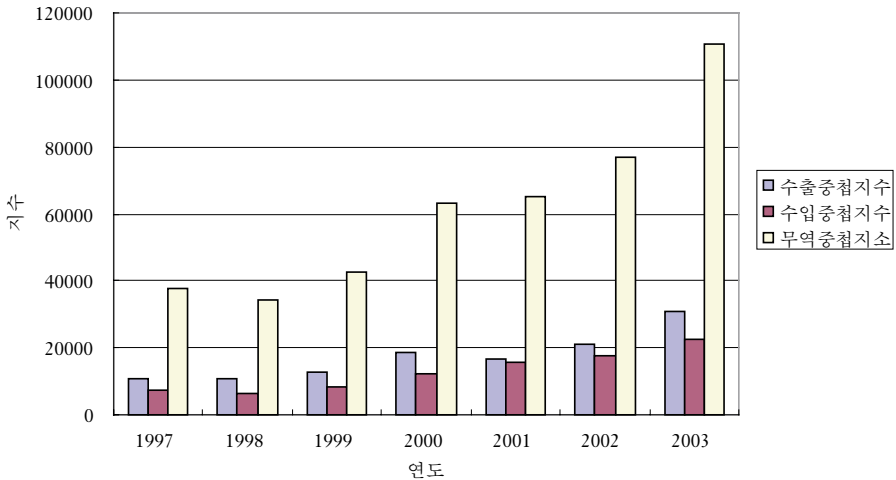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평창지수



〈그림 4〉 미국-중국 증척지수

수출평창지수보다 큰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지역별 분산 때문이다.

A국-B국간 증척지수의 경우 각 지역에서 A국과 B국 무역액을 곱한 이후 전지역에 걸쳐 합한 값이다. 표에 나온 값은 그 값을 1백만으로 나눈 것이다. 중국 무



〈그림 5〉 일본 — 중국 중첩지수

역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중첩지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미간의 경우 수입시장에서의 중첩이, 중일간의 경우 수출시장에서의 중첩이 더 크나, 그 증가율은 수입시장의 경우가 더 크다.

물론 이상의 지수는 양적 측면만 측정하고 있고 중국을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을 다른 편으로 보아 수출품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중첩 그 자체가 경쟁의 심각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원자재 등) 수입의 경우는 중첩이 클수록 경쟁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될 경우 수출 중첩도 결국 경쟁을 동반하고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조만간 중첩의 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4) 중국성장의 국제정치와 외교

중국의 경제적 팽창은 경제개혁과 개방,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중국산 저가 수출품들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그러나 팽창압력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팽창은 조만간 정치적 팽창을 낳는다. 특히 고도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시장 확보에 외교적 노력 때문이다.

〈표 2〉 2000년 이후 중국정상의 외국방문

시기	방문자	방문국	안건/목적	비고
2000. 4.	장쩌민	Israel, Palestine, Egypt, Turkey, Greece, S. Africa	정치적 목적; WTO가입; 타이완 문제 등	
2000. 7.	장쩌민	상하이 협력기구(SCO) 창립정상회담;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2000. 9.	장쩌민	유엔Millennium총회		
2000. 11.	장쩌민	Laos, Cambodia, Brunei 순방	부르나에서 열린 APEC총회참석	
2001. 4.	장쩌민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쿠바, 브라질, 베네주엘라 등 순방	주요 경제적, 정치적; 베네주엘라와 석유협정	첸수이벤 방문에 앞섬
2001. 7.	장쩌민	러시아, 벨루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말타 등 CIS국가 순방	미국의 패권주의; NMD비난	
2001. 12.	장쩌민	미얀마 방문	인도양으로 진출로 확보; 인도의 영향력 견제	
2002. 2.	장쩌민	베트남		
2002. 4.	장쩌민	독일, 리비아, 튀니지아, 나이지리아, 이란 방문	리비아와 오일협정, 나이지리아, 이란도 산유국	1996년 이후 4번째 아프리카 방문
2002. 6.	장쩌민	카자흐스탄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	안보대화
2002. 7.	장쩌민	SCO정상회의/러시아 세인트피터스버그	SCO 회원국 = China, Kazakhstan, Kyrgyzstan, Russia, Tajikistan, Uzbekistan	
2002. 10.	장쩌민	미국 국빈방문		
2002. 10.	장쩌민	멕시코/APEC정상회의		
2003. 5.	후진타오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리아 순방	SCO정상회의(Moscow)참가 겸;	프랑스에서 열린 N-S대화 참석
2003. 10.	후진타오	태국, 호주, 뉴질랜드 순방	PMG 및 호주와 에너지 협정	APEC태국 참석차
2004. 1/2	후진타오	프랑스, 이집트, 가봉, 알제리아		
2004. 6.	후진타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순방	SCO정상회의 참석(우즈베크)	
2004. 11	후진타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쿠바	아르헨티나에 2천만불 투자 약속	APEC칠레 참석차
2005. 4.	후진타오	부르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방	반동회의 5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참석	정치적 합의
2005. 5	후진타오	모스크바	종전 60주년기념	
2005. 7	후진타오	러시아, 카자흐스탄, SCO G8+5(영국)	러시아와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남미, 호주와의 정상회담이 그를 반영한다.

〈표 2〉와 〈표 3〉은 2000년 이후 중국 정상 국가주석 및 총리의 해외방문외교를 요약하고 있다. 정상급의 외교는 중국정부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수립한 외교계획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생각하는 외교적 현안을 엿볼 수 있다.

〈표 2〉와 〈표 3〉에 나타난 것을 보면 중국의 외교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외교다.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외교적 개입을 강화하여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나아가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꾀한다. 미국의 패권주의, NMD에 대한 반대, 하나의 중국정책과 대만에 대한 상대적 우위의 확보 등이 그 목적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와 같은 외교적 행태가 엿보인다.

둘째는 경제/실리적 외교다. 무역협정, 자원협정 등을 통한 외교로 주로 ASEAN, APEC, ASEM 등 다자외교의 장을 활용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총리의 행보는 주로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고 유럽에서의 외교행보도 그와 같은 측면이 강하다. 중남미 지역, 호주 등도 마찬가지다.

셋째는 정치/전략적 외교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러시아와는 매년 정상급 외교를 가지고 있고, 특히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기울이는 노력이 돋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버마, 베트남 등 인근국가와, 인도와 그 주변 즉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돋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패권반대, NMD반대, 대만에 대한 외교적 우위 확보 등 정치적 차원의 외교적 행보가 돋보이다가 점차 경제적, 실리적 외교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면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전략적 외교다. 전략적 외교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행보, 특히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즉 SCO이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1996년 4월 상하이에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등 5개국 정상이 만나 소위 “Shanghai 5”를 출범시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최초의 목적은 국경을 접한 이들 국가 사이에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기구는 느슨한 형태의 지역안보협력체, 일종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였다. 그러나 이 기구는 그 조직과 기능, 나아가 참가국의 범위를

〈표 3〉 2000년 이후 중국 총리의 외국방문

시기	방문자	방문국	안전/목적	비고
2000. 6	주룽지	불가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EU, 네덜란드		
2000. 10.	주룽지	일본, 한국, ASEM	중국WTO가입효과에	
2000. 11.	주룽지	ASEAN + 3/ASEAN-China Singapore	대한 우려불식; ASEAN-China, EAST ASIA FTA논의	
2001. 5.	주룽지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몰다이브, 태국	경제; 미국의 패권주의, NMD에 대한 비난	
2001. 9.	주룽지	중-러 정례수상회담 러시아; 아일랜드; 중-EU정례회담; 벨기에 SCO 수상회의(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공식방문		
2001. 11.	주룽지	ASEAN+3(Brunei), 부르나이, 인도네시아		
2002. 1.	주룽지	방글라데시/인디아	서부아시아의 안정은 중국대서부개발에 필수적	
2002. 4.	주룽지	터키, 이집트, 케냐		
2002. 8.	주룽지	알제리, 모로코, 카메룬, 남아공		
2002. 9	주룽지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ASEM(코펜하겐), 중국-EU지도자 회의	
2002. 11.	주룽지	캄보디아	ASEAN + 3	
2003. 4.	원자바오	방콕에서 열린 SARS관련 특별정상회의		
2003. 10.	원자바오	발리, 인도네시아	ASEAN + 3	
2003. 12.	원자바오	미국, 캐나다, 멕시코,		
2003. 12	원자바오	이디피아	(중국-아프리카 협력회의)	
2004. 5.	원자바오	독일, 벨기에, EU, 이태리, 영국, 아일랜드	주요 경제문제	대중국 무기금수 제도 논의
2004. 9.	원자바오	키르기즈스탄/러시아	SCO; 중러수상회의	러시아에서 석유수입논의; 대러 투자논의
2004. 10.	원자바오	베트남	ASEM회의차, 베트남과의 경협논의	
2004. 11.	원자바오	라오스	ASEAN+3	
2004. 12.	원자바오	네덜란드	중국-EU지도자회의	독, 불의 지지로 대중국 무기금수 해제 요구; 실패
2005. 5.	원자바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선린우호	
2005. 5.	원자바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제4차 아시아협력대화	

급격히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00년에 옵저버로, 2001년부터는 정식가맹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 수상회담, 외상회담 등을 정례화하였다. 2005년의 움직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인도, 이란, 파키스탄이 준가맹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참여한 6월말~7월초의 정상회담에서 SCO는 미국이 중앙아시아에서 군대와 무기를 철수할 시한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란에서의 정권변화에 대해 반대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는 SCO의 틀 안에서 지난 8월 중국 산둥반도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의 명분은 테러리즘(terrorism), 극단주의(extremism), 분열주의(separatism)에 대항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훈련의 양상이나 강도는 테러리즘에 대한 대비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략폭격기 및 미사일 등을 이용한 대함(항공모함) 작적, 최신 대잠수함 구축함을 이용한 해상봉쇄, 러시아 군에 의한 상륙부대 지원 등이 있었다. 특히 중국에의 전략무기 수출을 노린 러시아는 다양한 첨단무기를 과시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훈련은 전략적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외교행보를 앞에서 논의한 이론적 측면과 비추어 볼 때 두 가지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 중국의 팽창이 미국의 이익과 중첩될 가능성은 라틴 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돋보인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은 중국 정상이 두 차례 이상 방문한 많지 않은 지역이다. 그와 같은 외교적 노력은 1) 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 영향력, 2) 그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반발과 맞물려 중첩 내지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정책에 반발하면서 중국과 같은 대안적 시장이 있다고 강변한 것이 좋은 예다.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의 전통적 영향권에 중국이 진출함으로써 이해영역이 중첩되고 그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팽창에 서로 맞물리면서 중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중국의 대러시아 편중외교는 지속되고 또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극히 전략적인 부분으로 한편으로 중국의 경제적 비중이 강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가 유럽의 중심무대에서 소외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밀월관계는 계속 지속되고 더

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에너지 필요와 러시아의 경제적 필요가 맞아 떨어질 경우 더욱 그렇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은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라틴 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팽창이 중첩된다면 이 두 지역의 정치적 안정여부가 중미관계, 나아가 세계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 견해는 이익의 중첩에만 관심을 두었지 지역차원의 정치적 동학이 촉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통상적인 외교활동에서는 서로의 행보에 주목하고 그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중첩 그 자체는 특히 위험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베네수엘라의 행보에서 보듯이, 또 인도의 행보에서 보듯이 국지적 행위자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안목과 유혹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내부 정치적 동학 속에서 치명적으로 맞물리면 매우 폭발적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중남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내부적 정치에 긴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의 경우 한편으로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지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된 이후 그 국가적 안정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나라가 많다. 즉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정치적 제도도 공고히 자리 잡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나라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구소련시대 이주한 러시아인 총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종교적으로도 무슬림이 47%, 러시아 정교도가 44%를 차지한다. 정치적으로도 공화정체를 표방하나 사실상 독재국가이다(〈표 4〉 참조).

〈표 4〉 상하이 협력기구 참여 국가 현황

	영토크기(1,000km ²)	인구(1,000명)	GDP(10억\$:성장률)	일인당 GDP(\$)
중국	9,596	1,306,314	7,262(9.1)	5,600
러시아	17,075	143,420	1,408(6.7)	9,800
카자흐스탄	2,717	15,156	118(9.1)	7,800
키르기스스탄	198	5,146	8.4(6.0)	1,700
타지크스탄	143	7,163	8.0(10.5)	1,100
우즈베키스탄	447	26,851	47.6(4.4)	1,800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만만치 않다. 인구의 88%가 무슬림이고 젊은 인구비율이 매우 높다. 경제성장이 지체되어 실업률이 20%에 달함으로써 이들이 이슬람 테러리스트 행동대원으로 충원될 가능성도 있다. 독립 이후 서방을 지향하여 탈러시아의 외교행보를 보이다가 2000년 이래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적 주둔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음으로써 이 지역에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요컨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에 속했다가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중국이 접근함으로써 3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중첩되고 있는 곳이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가 진척될수록 촉발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5. 결론

미국이 유례가 없는 유일한 세계적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급성장하는 중국이 미국의 힘을 균형 잡을 유일한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그 경제의 대외적 팽창을 가져와 우선 수입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수출시장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거대경제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둘째, 그와 같은 경쟁의 맥락에서 중국의 성장은 정치적 팽창도 초래한다. 곧 중국정부가 그 경제적 팽창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를 취함에 따라 국제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셋째, 강대국들의 대외팽창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중첩될 경우 지역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은 국지적 정치세력들은 강대국의 세력을 자신들의 세력다툼에 이용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 첨예할 경우 강대국들도 국지적 세력들에 얽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곳이 유라시아의 중심,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이 지역은 구소

련에 속했던 만큼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에 속하는 위에 최근 미국과 중국이 그 정치적 존재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이 풍부하여 그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고 정치적 안정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따라서 강대국들이 그들 사이의 국제적 경쟁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레짐을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하는가는 비단 중국이나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중국이 1970년대 초이래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지위를 누려왔지만 OECD나 G-7과 같은 선진국의 지위에는 있지 않다. 한편으로 중국이 그 국내적 및 대외적 경제관행을 세계적 표준에 맞추고 그 대외정책을 일국 중심적이 아니라 세계적 상호의존성을 염두에 두고 전개한다면, 동시에 기왕의 열강이 중국에 대한 노골적 봉쇄에 나서는 대신 세계적 차원에서 포용한다면 성장하는 중국은 기존의 국제체계의 일부분으로 순조롭게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등장은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세계정세 그 자체를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비교적 게을리 취급되어 온 것이 팽창, 중첩, 촉발의 동학이다. 우리 연구팀에서 이 점에 주목하여 실증적 연구를 하면 “세계적 수준”의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 김우상(2004), “세력전이이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사.
- 김태현(2004), “세력균형이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사.
- 김태현(2000), “제국주의, 민족주의, 제1차 세계대전”, 국제정치경제연구회 편,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서울: 사회평론사.
- 김태현(1997), “강대국의 부침과 국제질서의 변동: 중국과 동아시아”, 《현대중국》, 창간호, pp. 9-38.
- 백창재(2004), “패권안정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사.
- Ashley, Richard K. (1980),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and Peace: The Sino-Soviet-American Triangle and the Modern Security Problematique*, New York: Nicholas Pinter.
-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1997a),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Knopf.
-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1997b),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April).
- Buzan, Barry (1991),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Colo: Lynne Rienner.
- Choucri, Nazli, and Robert C. North (1989), “Lateral Pressure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ncept and Theory”, In Manus I. Midlarsky (ed.), *The Handbook of War Stud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houcri, Nazli, and Robert C. North (1975), *Nations in Conflict: National Growth and International Violence*, San Francisco: W. H. Freeman.
- Friedberg, Aaron (2005),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Fall).
- Gertz, Bill (2000), *The China Threat: How the People’s Republic Targets America*. Washington, DC: Regnery.
- Menges, Constantine C. (2005), *China: The Gathering Threat*, Thomas Nelso.
- Gilpin, Robert (1989), “The Theory of Hegemonic War”, In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 (eds.),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New York: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75),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 Goldstein, Joshua (1988), *Long Cycles: Prosperity and War in the Modern Age*,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Hobson, J. A. (1902), *Imperialism: A Study*, London: Allen & Unwin.
-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Jervis, Robert (1997), *System Effec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gler, Jacek, and A.F.K. Organski (1988), "The Power Transition: A Retrospective and Presepective Evaluation", In Manus Midlarsky (ed.), *The Handbook of War Stud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oss, Robert S. (1997), "Beijing as a Conservative Power", *Foreign Affairs*, 72(2).
- Thucydides (1943), *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Edited in translation by Sir Richard Livingst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Vogel, Ezra F. (ed.) (1997), *Living with China: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Norton.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International Politics of China's Growth: A Lateral Pressure?

Taehyun Kim*

What are ramifications of China's fast economic growth for world politics? Does exist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shed light on the question? Many of existing studies on the subject including so-called "China threat" thesis are based on such grand theories as balance of power, power transition, or hegemonic war. While such theories may prove useful in understanding some dimensions of the issue, it hardly provide any clue to the specific paths or processes of alleged rivalry and conflict. This study relies on the "lateral pressure theory of war" proposed by Choucri and North, and tries to clarify some of those paths or processes. It also analyzes international trade as well as diplomatic records to trace potential areas where U.S. and Chinese spheres of influence intersect, and resulting rivalry interacts with local political dynamics so as to result in "provocation." Provocation is likely to occur where two or more great powers simultaneously expand their influences and local politics is unstable. Central Asia, or so-called the "arc of instability" is one such area.

*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